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 —

- ① 요구-위협-환기-조건 ② 환기-요구-조건-위협
 ③ 위협-조건-환기-요구 ④ 조건-요구-위협-환기

[정답] ② (난도: 중)

[정답풀이]

주술성을 지닌 고대 집단가요인 「구지가(龜旨歌)」가 한역(漢譯) 원문으로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전반부는 '명령', 후반부는 '위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구] 구하구하(거북아 거북아): 거북이를 부름으로써 주의를 불러 일으킴. 주의 환기.
 [송구] 수기현야(머리를 내어라): 명령하거나 요구함.
 [전구] 약불현야(만약 내놓지 않으면): 가정과 조건.
 [결구] 번작이끼야(구워서 먹으리): 위협 혹은 협박.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호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③ 화자는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④ (난도: 중)

[정답풀이]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고단한 삶의 여정을 호르는 강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거기 슬픔도 피다 버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고단한 노동의 "생애도 저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묘사하여 전달하려 하였다고 서술된 ④는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일이 끝나 저물어",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거기 슬픔도 피다 버린다"와 더불어 끝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③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꾸려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민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난도: 중)

[정답풀이]

한자 성어의 유래와 관련된 서사를 바탕으로 성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밑줄 친 곳의 앞부분을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이라고 하였다. 이는 ②의 '囊中之錐(낭중지추)'에 해당하는 말이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말이다. '주머니 낭, 가운데 중, 어조사 지, 송곳 추'이다.

[오답풀이]

-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하는 성어이다.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그냥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리는 태도를 가리킨다.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이다.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었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③ (난도: 중)

【정답풀이】

영달이가 ‘대전에서의 옥자’를 생각하게 된 것은 등에 업힌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과 같이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옥자’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답풀이】

- ①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발을 빼게 된다.
- ② 영달이는 등에 업힌 백화가 너무 가벼워서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리게 된다.
- ④ 백화가 처음에는 영달이 등에 업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업힌 후에는 수용하고 있다.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③ (난도: 하)

【정답풀이】

다의어의 문맥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③의 경우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외에, ‘병 따위를 낫게 하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모양이나 내용 따위를 바꾸다, 처지를 바꾸다’ 등의 의미가 있다.

【오답풀이】

-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 ① 몹시 짓곳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① (난도: 상)

【정답풀이】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곳은 데가 있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②는 ‘활발하다(活潑--)', ③은 ‘산만하다(散漫--)', ④는 ‘잔망스럽다(戔妄--)' 등의 단어에 대한 풀이이다.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강염기
- ② 강타자
- ③ 강기침
- ④ 강행군

【정답】 ③ (난도: 중)

【정답풀이】

①②④는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한자 접두사 ‘강-(強)’이 결합된 단어로, ‘강추위’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③에 결합된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순우리말 접두사이므로 정답이 된다. 사전 정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강-

「1」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굴/강술/강참숯/강풀.

「2」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기침/강터워/강모/강서리.

「3」 ‘억지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울음/강호령.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같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정답】 ② (난도: 중)

【정답풀이】

②에 쓰인 ‘불은’의 기본형은 ‘불다’가 아니라 ‘불다’이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는 뜻을 지닌 동사 ‘불다’는 ‘ㄷ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가 결합되면 받침 ‘ㄷ’이 ‘ㄹ’로 바뀐다. 그래서 ‘불은’, ‘불어, 불으니, 불었다’ 등으로 활용한다. 유의할 점은 자음 어미가 결

활될 때는 ‘르’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고’와 같이 쓰인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갈다: ‘르탈락 용언’으로 ‘갈고’, ‘갈아’, ‘가니’, ‘가오’ 등으로 활용한다.
 ③ 이르다: ‘르불규칙 용언’으로 ‘이르고’, ‘이르니’, ‘일러’, ‘일렀다’ 등으로 활용한다.
 ④ 들르다: ‘-탈락 용언’으로 ‘들르고’, ‘들러’, ‘들렀다(가)’ 등으로 활용한다.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라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러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 한 혹은 달리고 그 혹은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뿜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난도: 중)

[정답풀이]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푸줏간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인물 묘사와 행위가 나타나지만 그 공간적 배경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 ① 푸줏간에서 ‘나’는 어머니가 당부한 두 가지 말을 실행하고 있다.
 ② 혹은이라도 어린아이라고 고기를 적게 줄까 봐 걱정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나타난다.
 ④ 고기를 자르기 전에 고기를 조금 주냐고 따지는 ‘나’의 말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아이없어하던 푸줏간 주인이 나중에야 어른이 시킨 말임을 짐작하고 웃고 있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6·25 전쟁 직후의 참담한 흔적이 남아 있는 항구도시 인천 외곽의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성장 과정을 담

아낸 성장소설이다. 아버지 일자리를 따라 소녀가 이주한 중국인 거리는 전후 폐허가 된 건물들과 낡은 모습의 중국식 적산 가옥, 기지촌과 미군 부대로 둘러싸여 있는 하층민들의 빈민가이다. ‘나’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삶을 관찰한다. 동거하던 흑인 병사에게 살해된 양공주 매기 언니의 죽음과 어두운 삶을 살다 간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보게 되고, 초경을 맞이하게 되는 ‘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해 간다. 회상 형식의 일인칭 단편소설이다.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웅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난도: 하)

[정답풀이]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④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넷째 단락에서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였다.
 ② 첫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③ 첫째 단락에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난도: 중)

【정답풀이】

이 시에서 ‘나비’가 ‘공주처럼 나약’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존재는 아니다. 낭만적 동경을 추구하지만 삭막하고 냉혹한 근대문명을 접한 뒤 나비의 꿈은 좌절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청(靑)무우밭’과 ‘바다’의 감각적 이미지(시각, 색채)는 동일하지만 함축적 이미지는 대립적이다. ‘청(靑)무우밭’은 나비가 추구하고 동경하는 공간이지만, 삭막한 ‘바다’는 그 꿈을 좌절시키는 공간이다.
- ② 1연과 2연을 보면, 흰나비는 바다의 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시련을 겪게 된다.
- ④ 꽃이 피어야 할 삼월인데도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바다와 시린 초생달의 차가운 이미지는 모두 삭막하고 냉혹한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 ㉡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겨진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 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충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 ㉠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② (난도: 하)

【정답풀이】

<보기>에서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세태 소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

‘황금광(황금에 광적으로 정신을 쏟는 사람) 시대’에 편승하여 황금을 찾아 한탕주의를 노리는 ㉠ ‘금광 브로커’들은 구보에게 비판의 대상이지 예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거운 한숨’이 나온다고 하였다. 제시문에서는 1930년대를 휩쓸고 있는 황금만능주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 ㉠ 무직자들이 금광 브로커가 되어 금광으로 떠나는 개찰구는 황금광 시대의 열풍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가는’, 그리고 지식인들까지 가세하여 휩쓸리고 있는 황금광 시대라고 하였다.
- ㉣ ‘충독부 광무과 열람실’에서 ‘고도의 금광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1930년대 지식인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을 다룬 자전적인 세태 소설이다. 흠여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소설가 ‘구보’가 목적 없이 집을 나선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도중에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여러 단편적인 사실들과 그에 의해 촉발되는 두서없는 생각들을 나열한다. 서울 거리의 풍물과 세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내면의식 등이 자유 연상과 내적 독백(의식의 흐름), 그리고 시간의 교차(몽타주 기법) 등 여러 실험적 소설 기법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문 13】㉠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 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던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 (중략) ...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데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판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난도: 중)

【정답풀이】

‘풍진(風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로 복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후일 천상 세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흠향(歆饗)’이란 신령이 제물을 받아서 먹는다는 말이다. 이어 지는 내용을 보면, ‘길조가 이와 같으니 귀한 자식이 없을쏘냐.’라고 하였다.
- ② 앞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라고 하였고, 꿈을 깨면서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③ ‘익성과 대전(對戰) 서로 맞서 싸움’한 후로 상제 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 「조웅전」과 함께 조선 후기 영군담 영웅 소설의 대표작으로서 영웅의 일생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명나라 영종 황제 때 개국공신의 후예인 유심이라는 신하가 장부인과 사이에 늦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했는데, 남악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꾸 뒤 영웅의 기상을 가진 아들 ‘충렬’을 낳게 된다. 이후 역심을 품은 간신들 정한담, 최일귀 등에 의해 충렬 집안이 수난을 당하게 되며, 무예를 익힌 충렬이 간신들을 몰리치고 천자와 황실을 구한다. 유배지의 부친과 장인을 구하고 공훈을 인정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 14】㉠ ~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 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說明 | 描寫 | 敘事 | 論證 | ② 設明 | 描寫 | 敘事 | 論症 |
| ③ 說明 | 描寫 | 徐事 | 論症 | ④ 說明 | 描寫 | 徐事 | 論證 |

【정답】 ① (난도: 상)

【정답풀이】

설명(明說) 말씀 설, 밝을 명), 묘사(描寫 그림 묘, 寫 베낄 사), 서사(敘事 펼 서, 일 사), 논증(論證 논할 논, 證 증거 증)

【오답풀이】

設(배풀·세울 설), 描(고양이 묘), 徐(천천히 서), 症(증세 증)

【문 15】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날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여서 맞줄처럼 만들었다.

【정답】 ③ (난도: 하)

【정답풀이】

③ ‘잠갔다’의 기본형은 ‘잠그다’이며 ‘-탈락’ 용언이다. 따라서 모음 어미가 결합되면 어간의 ‘-가’ 탈락한다. ‘잠가, 잠가라, 잠갔다’ 등으로 활용한다.

【오답풀이】

- ① 날았다→나았다: 기본형은 ‘나타’로 ‘스불규칙’ 용언이다. 모음 어미 앞에서 ‘스’ 받침이 탈락하므로 ‘나아, 나은, 나았다’ 등으로 활용한다.
- ② 넉넉치→넉넉지: ‘-하다’가 붙은 어근 끝음절이 안올림소리이면

준말의 경우 ‘하’가 생략된다.
 ④ 이어서→이어서: 기본형은 ‘있다’로 ‘스불규칙’ 용언이다. ‘이어, 이어서, 이었다’ 등으로 활용한다.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ㅇ

② △

③ ㅍ

④ ㅅ

【정답】 ④ (난도: 중)

【정답풀이】
 훈민정음 28자모는 자음 17자, 모음 11자이다. 순경음 비읍(ㅍ)은 포함되지 않는다. ‘ㅅ’은 연서법, 곧 이어쓰기 규정에 의해 따로 만들어진 자음이다.

【오답풀이】
 ① ‘ㅇ’은 초성 가획자, ②의 ‘△’는 초성 이체자, ③의 ‘ㅍ’은 중성 재출자로서 28자에 해당한다.

구분	기본자	응용자
초성 체계	ㄱ, ㄴ,	· 가획자 → ㅋ, ㆁ, ㅌ, ㅍ, ㅈ, ㅊ,
	ㅇ, ㅅ,	ㅆ, ㅎ, ㅎ
	ㅇ	· 이체자 → ㅅ, ㅈ, ㅊ
중성 체계	ㅍ, ㅍ,	· 초출자 → ㅍ, ㅍ, ㅍ, ㅍ
	ㅍ	· 재출자 → ㅍ, ㅍ, ㅍ, ㅍ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정답】 ① (난도: 중)

【정답풀이】
 ‘여럿의 가운데’, ‘무엇을 하는 동안’, ‘안이나 속’ 등으로 쓰이는 의 존명사 ‘중(中)’은 대부분 앞말과 띄어 쓴다. ‘너희 중에’, ‘회의 중’, ‘오늘내일 중으로’, ‘공기 중에’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중, 무의식중, 부재중, 은연중, 한밤중, 병중, 허공중’ 등 은 굳어진 단어로 보아 붙여 쓴다.

【오답풀이】
 ② 잘할 뿐더러→잘할뿐더러: ‘-르뿐더러’는 굳어진 어미로 보아 붙여 쓴다
 ③ 시간만에→시간 만에: ‘만’이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면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안 된다→안된다: ‘잘되다’의 상대 개념일 때 ‘안되다’는 붙여 쓴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의미이다.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① (난도: 상)

【정답풀이】
 ① ‘탐험(探險 찾을 탐, 험할 험), 모순(矛盾 창 모, 방패 순), 화폐(貨幣 재물 화, 화폐 폐)’ 등은 바르게 독음하였다.

【오답풀이】
 ② 치열→작열(灼熱 불사를 작, 더울 열). ‘치열’은 ‘熾烈(성할 치, 세찰 열)’로 쓴다. 사기(詐欺 속일 사, 속일 기), 야기(惹起 이끌 야, 일어날 기).
 ③ 형자→형극(荊棘 가시나무 형, 가시 극) ‘형극’은 나무의 온갖 가시를 뜻하는 말로, ‘고난’의 의미로 쓰인다. 파탄(破綻 깨뜨릴 파, 터질 탄), 통찰(洞察 꿰뚫을 통, 살필 찰)
 ④ 악한→오한(惡寒 미워할·병이름 오, 寒 찰 한). ‘악한(惡漢 나쁜 사람)’과 구별한다. 참고로 ‘잠언(箴言 경계 잠, 말씀 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가리킨다. 사치(奢侈 사치할 사, 사치할 치).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ㄷ, ㅌ, ㅊ’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ㅈ’는 원순 모음이다.

【정답】 ① (난도: 하)

【정답풀이】
 ① ‘ㄴ, ㅁ, ㅇ’은 비음이고 ‘ㄱ’이 유음이다.

【오답풀이】
 [자음 분류표]

소리 내는 방법 (조음 방법)		소리 내는 자리 (조음 위치)	명 칭	두 입술					
				윗입술, 혀끝	센입술, 강, 혀바닥	여관입술, 강, 혀 뒤	목청 사이		
			입술소리	혀끝소리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라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ㅅ		ㄱ		
		된소리	ㅃ	ㅆ		ㄴ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鼻音)	ㅁ	ㄴ		ㅇ				
	유음(流音)		ㄹ						

[단모음 분류표]

혀의 높이	혀의 위치	전설(前舌) 모음		후설(後舌)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ㅓ	ㅕ	ㅗ	ㅛ
저모음		ㅑ		ㅓ	
입술 모양		평순(平唇)	원순(圓唇)	평순(平唇)	원순(圓唇)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2017년 국가직 국어 총평]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가)-(다)-(나)-(라) ④ (가)-(라)-(나)-(다)

[영역별 비중과 경향]

1편 문법과 생활국어: 11문제
 (훈민정음 28자모, 자음과 모음의 유형 분류, 용언의 기본형 파악, 접두사의 한자 어원 여부, 맞춤법, 띄어쓰기, 다의어의 문맥의미, 순우리말의 의미, 문맥 한자성어 추리, 한자 어휘의 독음, 한자 어휘의 표기)

2편 작문과 비문학: 2문제
 (단락의 논리적 배열, 정보 확인과 논지 이해)

3편 현대문학: 5문제
 (시-이미지와 화자의 태도, 화자의 처지와 행위 이해, 소설-소재의 역할과 인물의 심리 추리, 서사 요소 파악, 소재의 의미와 역할)

4편 고전문학: 2문제
 (고대가요-전개방식 이해, 고소설-소재 역할과 서사 이해)

2017년도 국가직 국어 시험은 난도가 높았던 전년도에 비해 난도가 낮았습니다. 최근 국어 문제는 난도가 많이 높아지고 지문도 많이 길어진 상황이었지만 금번 시험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즉 문법이나 문학에서 기본을 탄탄히 다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운 체계와 유형, 용언의 기본형 파악의 문제 등이 그러했고 시와 소설 문제도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지문 독해 문제도 정답을 찾기에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자 어휘 문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한자 표기 문제와 독음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것입니다.

예년에는 작문과 비문학 문제가 5~7문제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적게 나왔고, 대신 비중이 낮았던 문학 영역에서 올해 많이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공무원 시험은 영역별로 비중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으려면 전 영역을 고루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법과 문학의 기본을 다지는 노력과 함께 우리말 의미와 한자 학습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올해 난도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난도를 높여서 올해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입니다. 건강 유의하면서 ‘열공’ 바랍니다.

[정답] ② (난도: 중)
[정답풀이]
 선택지를 보면 일단 (가)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접속어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와 지시어 ‘이런(다), ‘그(라) 등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단락의 논리적 전개 및 인과 관계를 추리할 수 있다.

(나)는 (가)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다음 이어지는 (라)에서 역접의 접속어와 함께 ‘그, 즉 혜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연결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나)와 (라)를 전제로 (다)의 결론이 이어진다.

내용을 요약하여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물은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혜시가 말한 ‘방생의 설’이다. - (라) 그러나 혜시도 말하듯이 ‘삶’과 ‘죽음’, ‘된다’와 ‘안 된다’, ‘옳다’와 ‘옳지 않다’가 필연적으로 상존한다. -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보며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장자』에 나오는 말이다. 결국 이것과 저것의 대립은 없는 셈이며 사물의 현상이나 시비를, 상대적 가치판단에 의거하여 명확히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지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절대적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더 큰 긍정을 도출해야 한다고 한 부분을 통해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였던 장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